

만남

2021년 9월
통권 200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순교자 성월에-----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4
교리	교리 톡톡-----	7
영적 상담	-----	10
보물 창고	-----	12
슬기로운 신앙	-----	14
축일을 축하합니다	-----	17
이 달의 전례	-----	18
50주년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 양식

우리 모두가 검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 양식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이를 위하여 확고히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순교자 성월에

9월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기리는 순교성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이라도 조금 더 각별한 마음으로 순교의 믿음을 새기고 순교의 정신을 기리며 지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천주교가 전래되었고, 거룩한 순교의 피 위에서 영광의 꽃을 피웠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선교사들에 의해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던 선각자들에 의해 종교 이전에 학문으로 연구되다가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깨달은 분들이 한 사람을 복경으로 보내 그곳에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 들어왔고,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은 함께 진리를 추구하던 선각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공동체를 이루어 한국에 교회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당시 유교사상의 계급사회에 반하는 것이었으므로 천주학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관 김범우의 순교를 시작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첫 백년은 실로 장엄한 순교의 세월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첫 사제였던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님은 순교의 피로 점철된 한국 천주교회사에 우뚝 서 계신 분이십니다. 26년의 짧은 생애와 죽음은 모든 한국 천주교인들의 가슴에 신앙의 의미를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서한을 통해 한국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키워간 모습과 그의 놀라운 결단력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젊은 신부의 가슴속에 흐르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 가슴 뜨거워집니다. 장안의 구경꾼들이 모여든 새남터 형장에서도 김대건 신부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으로 신앙을 증언 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 주시오. 내가 외국인과 만난 것은 천주를 위해서입니다. 그 천주를 위하여 나는 죽어갑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영생을 얻으려면 천주를 믿으십시오. 천주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녔기에 행복했던 김대건 신부님을 기리며 가을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 하늘 밑에서 김대건 신부의 믿음처럼 강한 믿음으로, 열정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님과 수많은 유명 무명 순교자들의 피로써 지켜낸 순교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7-35)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 ❖ 예수님! 당신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 찬미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8 2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31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 8 31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3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3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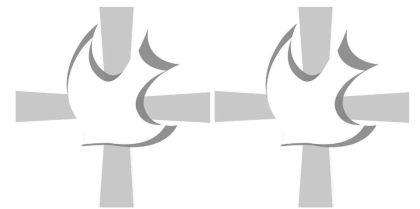
☞ 자신의 십자가가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8, 30)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도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제삼자의 입장에서 구경꾼의 모습을 취한다면 예수님의 이 물음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물음을 듣고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물음을 듣고 부모나 형제나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님 또는 주님”(요한 13, 13)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절대 순종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라면 비록 제대로 못해도 해보려고 애쓰는 몸짓이라도 하고,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닮아 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곧 나의 신앙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청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하느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2절과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9. 사도적 소명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진 박해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친교 안에서 대대로 보존해 온 평신도들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와 만남 연설, 2014. 8.16)

평신도는 성직자와 수도자와 더불어 하나의 하느님 백성을 이룹니다. 하지만 평신도는 그들과는 달리 온갖 세상의 직무와 일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하느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성품의 구성원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된다. 곧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교회헌장 31항)

평신도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것을 ‘사도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봉헌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평신도는 자기 자신과 일상생활을 봉헌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일과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과 휴식 등은 물론 삶의 기쁨과 괴로움까지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이 됩니다. 이 제물을 주일 미사에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 세상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평신도의 현세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하느님께 바치는 영적 예물이자 제사가 됩니다. 이것이 평신도의 사제적 소명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죄악을 밝히고 고발할 수 있는 역량과 책임을 다하는 것, 평신도의 예언자적 소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의 왕적 소명은 역사 안에서, 현세를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는 죄의 유혹에 빠지려는 자기 자신과의 영적 투쟁에서 이기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 즉 봉사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왕직을 봉사직이라고도 부릅니다(가톨릭 교회교리서 897-913항 참조).

“모든 평신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세상 어디에서나 더더욱 널리 가 닿도록 노력하여야 할 빛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교회헌장 33항)

사제직, 예언직, 왕직, 이렇게 세 가지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20. 그리스도교 장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현세의 은총에서 내세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죽은 이가 하루빨리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시간이요, 자신에게 올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 장례는 교회의 전례 거행이다. 이 경우에 교회의 직무는 이 전례에서 죽은 이와 이루는 효과적 통공을 표현하는 동시에 장례식에 모인 공동체를 그 통공에 참여하게 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고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84항)

그리스도교의 장례는 임종과 운명으로 시작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가족들은 본당 신부님께 병자성사를 청합니다. 그리고 임종이 시작되면 임종을 돕는 기도를 바치며, 그 영혼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운명이 확인되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운명 후에 바치는 기도를 올리며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지, 본당 신부님과 구역장, 반장 그리고 연례회장에게 알려 공동체의 기도를 청합니다. 다음으로 집이나 성당 영안실 혹은,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문상을 받습니다. 이후 장례 기간 동안 고인을 위해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죽음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보는 장례 2일 차 이후로 염습(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수의를 입히는 과정)과 입관(염습한 시신을 관에 넣는 것)을 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본격적인 장례절차가 시작됩니다. 먼저, 빈소에서 나와 성당으로 향하는 출관을 하고 성당에서 장례미사와 고별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묘지로 이동하면서 운구 예식을 하고 무덤 축복과 매장으로 이어지는 하관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중 고인을 떠나보내는 가장 장엄한 예식은 장례미사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제사인 성찬례를 성부께 봉헌함으로써, 고인의 죄와 그 결과가 정화되어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파스카 축제에 참여하게 해 주시기를 성부께 청합니다. 이렇게 거행된 성찬례를 통해 신자 공동체 특히 죽은 이의 가족은, 죽은 이가 한 지체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통공을 이루고, 또 죽은 이를 위하여 죽은 이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잠든” 이와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89항). 미사에 이어 고별식이 이어집니다. 고별식은 교회가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묘지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형제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로 공동체는 떠나는 이와 헤어짐과 그와의 친교 그리고 재회를 노래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90항).

21. 성인 공경

교회는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이들, 하느님 말씀을 증거하며 산 이들을 모든 신자의 귀감으로 선언하고, 이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공식적으로 성인의 품위(시성식)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 장소, 국가, 개인이 특정한 성인을 보호자(수호성인 혹은 주보성인)로 삼아 존경하고 그 성인을 통하여 하느님께 청원하며,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인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생활하다 죽은 후 하느님과의 일치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성인 모두를 기념하는 날이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성인의 유해와 성상에 대한 공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인에 대한 지나친 존경이 문제가 되자 교회는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예를 흠숭지례(欽崇之禮),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드리는 예를 상경지례(上敬之禮), 그리고 성인 성녀들에게 드리는 존경과 사랑을 공경지례(恭敬之禮)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인을 공경하는 이유는 성인들의 삶의 모범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인 ‘공경’은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흠숭’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과도한 성인의 공경 행사로 하느님께 대한 흠숭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모든 성인의 통공(Communio Sanctorum)”을 믿습니다. ‘성인의 통공’이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곧 산 이와 죽은 이 모두가 공로와 선행을 서로 나누고 공유함을 뜻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 받고 있는 이들 모두는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며, 이들은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천국에 있는 성인들은 우리를 위해 전구함으로써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온 교회를 성덕으로 더욱더 튼튼하게 강화하고 … 이들은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 아버지께 전구하며,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에서 주님을 섬기고 … 따라서 그들의 형제적 배려로 우리의 연약함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교회헌장 49항)

질문

저는 서른 살 청년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종교를 다니면서 길을 찾다가 성당에서 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교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인도한 어른들은 “믿음은 의문을 가지려고 하거나 물음을 가지지 말고 그냥 믿어야 한다.”며 “주님께서도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 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런 마음으로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님의 생각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토마스 사도가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품었기에 질책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인은 구도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구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에 형제님의 마음가짐은 바른 것입니다. 영성가들이 말하기를 믿음은 ‘해답’인 동시에 ‘물음’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물음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거나 혹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24시간 열려 있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과목들은 사랑, 용서, 행복, 상실, 두려움, 인내, 수용 등으로, 인간다워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나비가 누에를 벗고 날아오르듯이 우리 마음도 유아적 상태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방랑자들입니다. 늘 떠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랑 수행자, 구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떠나란 말은 아니고 마음이 진리를 찾아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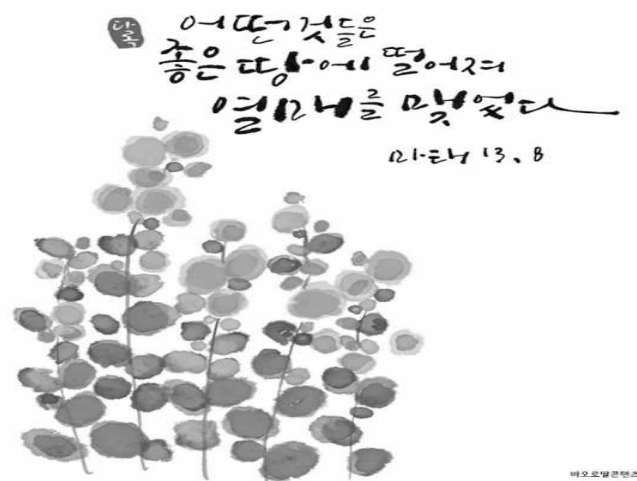
영성심리학자들은 방랑자의 원형은 인류 특유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

숨이 없을 때 우리는 인간 특유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 자리에 안주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퇴행하여서 고집스럽고 흥해져 갑니다. 방랑자들은 무언가를 배울 때 권위자들이 던지는 답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아웃 사이더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복종이나 경직된 도덕관은 길을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영성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새로운 도덕, 새로운 관념,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하고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삶의 의미를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살게 되면 방어기제 중에서 ‘내사’라는 방어기제,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 고문을 가하는 방어기제가 생겨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은 늘 우울하고 힘겨운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고문 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의 어느 시점에서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일까? 주님께서 내게 바라는 삶일까 하는 물음 - 그래야 하느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가 다가옵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그의 시는 힘이 넘쳤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내적 탐구를 하면서 삶의 활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회서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 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 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집회 4,11-13).



♥ 돈으로 사는 자아정체성(김용은 제오르지아 수녀님)

저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내로라하는 유명배우가 있습니다. 이름 석 자만 대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약 스타가 되더니 그의 가족조차도 친척들과 교류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혼식에는 장동건과 이병헌을 비롯한 한류 스타들이 대거 참석하였지만 친척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친척어른들은 배신감에 흥분했지만 그분과 우리는 이미 ‘혈연’이 아닌 ‘자본’으로 서로의 신분이 갈라진 것이지요.

자본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고와 인맥, 능력과 자격, 신용, 명예, 권위 등이 모두 자본입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하나의 ‘자본’이 증가하면 다른 자본도 커진다고 합니다. 자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요. 배우로 성공하면서 따라온 부의 축적이 곧 인맥과 명예, 권위 등 사회와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그의 가족은 ‘부’의 상징인 ‘강남’에서 상류층 신분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안 달라져.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만 더 커져.”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외로워도 슬퍼도 참고 또 참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도 희망 없는 현실을 한탄합니다. 게다가 세상은 입은 것, 걸친 것이 안목이고 실력이라며 가난한 디자이너의 안목은 후질 수밖에 없다고 대놓고 무시합니다. 세상은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묻기보다 어떤 취향으로 살아왔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서 어떤 집에서 사느냐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능력이고 신분이라는 겁니다.

부르디외는 이를 두고 “취향은 계급”이라는 말을 합니다. 브랜드로 서로를 알아보고 소비로 공감하고 소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나는 무엇을 소비하는가?’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안목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도 결국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일까요?

영국의 사회학자 돈 슬레이터는 자아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갖고자 정체성을 생산해서 여러 시장에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자아는 자기 자신을 시장에서 판매하기 좋게 내걸린 어떤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유한 노예」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는 성공은 자신을 어떻게 잘 판매하느냐에 달려있기에 자신을 파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하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나를 잘 포장하여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SNS 안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나요?

SNS 활용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하고 유명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와 학력, 독특한 경력으로 ‘나’라는 사람을 알리면서 여기저기 유명세를 타고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 SNS에서의 ‘나’는 모델이고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인 친구와 지인의 감각에 파고들어 소통하면서 ‘나’를 팔게 되지요.

소비란 다만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학자인 보드리야르는 ‘소비’란 가격표가 없는 시간, 지위, 매체, 물과 공기까지 써버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곧 소비의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욕망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환경과 재현하는 기호들과의 소통은 하나의 구매행위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소비의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고받는 문자와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소통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소비의 메커니즘 속에 갇혀 사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상의 ‘소비’는 우리 삶의 방식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 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나’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역할에 맞춰 연기하는 또 다른 자아,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자아와 페르소나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포장했던 페르소나가 어느 순간 본래의 ‘나’를 밀쳐내기도 합니다.

시인 에드워드 영은 “우리는 모두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왜 복사본으로 죽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진짜 ‘나’는 소유와 소비 때문에 변질되고 왜곡되어 갑니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요? 나의 정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요? 시간이 흘러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나의 실체는 있는 걸까요? 나는 ‘나’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나만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셨음(창세 1,27 참조)을 잊지 않고, 세상을 일구고 돌보라는(창세 2,15 참조) 소중한 사명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원본(original)으로 태어났으니 원본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거룩함(정희완 사도 요한 신부님)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세상은 어수선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물리친다 해도 또 다른 감염병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염병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감염병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형 집회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대형화와 외적 성장을 추구해 왔던 교회들의 삶의 방식이 변할 것입니다. 미래의 신앙생활은 작은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국의 어느 신학자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이웃에 살며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신앙생활 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대형 집회를 형성하는 부흥회 형식의 신앙 모임은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작은 모임들이 확산되어 좀 더 큰 모임으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처음부터 대형 집회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의 작은 공동체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설적인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슬픈 일들에 응대하는 신앙의 방식

살다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고 슬프고 고통스런 일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피하고 싶습니다. 자기 삶 안에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온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응대하는 방식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자기 생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유난스레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운 좋게도 평탄하고 기쁜 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마냥 평탄하고 기쁜 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큰 질병과 큰 고통 없이 평탄하게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을 살아갑니다.

운명의 질곡 속에서 혹독함을 겪는 사람도 있고, 순탄하게 자기 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생의 운명은 차별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왜 어떤 일들이 운명처럼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응대하는가입니다.

가끔 신앙인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혹시 하느님의 시험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범한 어떤 잘못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연 재해와 커다란 질병의 성행이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의 인과응보의 논리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꾸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로 하느님의 섭리를 재단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의 섭리는 언제나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얽박한 논리로 하느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복음과 신앙의 방식으로, 즉 예수님의 태도와 방식으로 응대하는 일입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행복선언 가운데, 역설적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선언입니다. 슬픔은 슬픔입니다. 슬픔이 기쁨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사람은 가족이나 주변의 질병과 슬픔 같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눈을 돌립니다. … 세상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무시하는 편을 택하고 이를 덮어 두거나 감추어 버립니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75항) 하지만 신앙인은 다가온 슬픔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슬픔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슬픔을 발생시킨 상황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어디서든 십자가가 결코 없을 수 없다.”(75항)는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슬픔을 수용한다는 것이 단순한 체념과 굴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슬픔을 견뎌내고 극복하기 위해 슬픔을 정직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값싼 동정과 거짓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위로는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슬픔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슬픔은 슬픔만이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슬픔이 우리 생의 슬픔을 감싸 안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슬퍼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퍼할 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구원 능력을, 십자가의 그 깊은 위로를 맛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물을 존재하는 그대로 보고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은, 삶의 깊은 곳까지 다다를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76항)

슬픔의 연대만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슬픔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슬픔을 수용할 줄 아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사람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고통과 슬픔보다 먼저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고통과 슬픔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연대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슬픔을 정직하게 수용할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용기를 낼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해 달아나지 않습니다.”(76항) 참 신앙인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위안을 줌으로써,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76항) 사람입니다.

슬픔만이 슬픔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슬픔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즉 진정으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슬픔을 수용(공감)할 수 있으며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연대는 깊고 큼니다. 슬픔의 연대만이 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아파하니 모든 거리감도 사라지게 됩니다.”(76항) 참다운 친밀성의 공동체는 오직 슬픔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로마 12,15) 함께 울 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신비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 9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베레나	김 윤 하	29일	가브리엘	최 서 로 박 준 영 남 재 민
3일	그레고리오	김 유 석 김 성 호		가브리엘라	박 연 심 이 현 후
8일	마리아	권 오 상		미카엘	최 희 로 박 지 현 황 영 선
17일	로베르토	강 일 남 이 도 선		미카엘라	김 혜 정 김 민 현 김 영 호
		이 정 훈		라파엘	이 종 하 박 지 우
21일	요나	박 요 나 안 태 웅	30일	소피아	심 재 은

❖ 9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세라피아	박경자(B)	21일	마태오	김명수(H)
6일	베아타	신의경(H)	26일	빈첸시오	추이슬(B)
12일	마리아	양봉자(B) 유복희(O)	29일	가브리엘라	신윤경(O)
20일	하상 바오로	정하상(O)		미카엘	이종열(B) 김일환(H) 정근욱(H)
				라파엘	임석순(H)



❖ 9월 성가번호 ❖

9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5일	16	215	498	283
12일	46	210	161	289
19일	436	226	517	416
26일	17	510	179	285

❖ 9월 전례 봉사 ❖

9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5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12일	이정훈(요나스) 전우연(아네스)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X
19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6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네스)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주일학교	X

♥ 8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현금(8월 22일 기준)

강신행, 김경미, 강순행, 서세원, 우동천, 육종인,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영희 Eggerstedt, 최장용, 한말조,

* 계좌(8월 13일 기준)

권말숙 Rabe, 강일남, 김대현, 김동수, 허선애, 김유석, 김치수, 김진호, 김효정, 남궁춘배, 배성우, 백정선, 송문규, 이경규, 이공종, 이명원, 이성원, 이순임, 이석우, 오옥수 Ranitsch, 정정숙, 최성자, 최종금, 최현봉, 최아나벨, 허두옥, 허길조, 이영원, 현영애, 허채열, 김영복,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8월 13일 자 통장 잔액은 35.142,77 유로입니다(배구대회 잔액 4,449,43 유로 포함).

♥ 50주년 기념위원회의 회의 결과

올해는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입니다. 50주년 기념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애초에 계획했던 기념음악회, 사진전시회, 그리고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은 취소되었습니다.

② 50주년 기념미사는 외부 손님의 초청 없이 함부르크 공동체와 흑시 지방공동체에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지방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조출하게 11월 21일 일요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이 교회의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2021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11월 21일 일요일로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지만 흑시라도 그때, 공동체 나눔이 가능하다면 미사 후에 나눔의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미사 중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③ 미사 중에는 지금껏 50주년을 위해 기도하셨던 모든 기도의 횟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④ 기념미사에는 지방공동체 가족분들, 브레멘, 오스나브뤼크, 하노버, 그리고 노르웨이 공동체 가족분들도 초대합니다.

⑤ 지금껏 50주년 행사를 위해 적립하였던 본당 예산 중 10,000유로를 함부르크대교구와 마산교구에 각각 5,000유로 씩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봉헌의 의미로 기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부르크대교구에는 위원장님과 회장님께서 총대리신부님이신 안스카 팀 신부님께 직접 전달했으며, 마산교구에는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⑥ 5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는 발간하지 않지만 50주년 동안의 역사에 관해서는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흑시 50년 동안 특별한 행사나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김진호(프란치스코) 형제님에게 도움을 주시길 청합니다. 특별히 신심단체 활동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9월에도 미사 후 커피 나눔은 없겠습니다. 특별히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순교의 정신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 9월에도 레지오 주회는 있겠지만 꾸리아와 신심단체 그리고 구역모임은 없겠습니다. 그러니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3. 9월 18일 토요일은 Nacht der Kirche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교좌성당 주변에서 간단한 음식들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일단 행사는 계획되어 있지만 실시 여부는 아직까지 유동적입니다. 이후 공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4. 9월 21일 화요일은 한가위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9월 19일 일요일에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때 꽃이나 초를 가져오시면 제대 위에 놓아 주십시오. 미사 후 함께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공동체 나눔은 없습니다. 9월 21일 화요일 한가위 당일에는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아울러 9월 20일 월요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한국의 성인을 공경하는 의미로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9월 25일 토요일 11시에 주교좌성당에서 성 안스카 광역성당 설립 미사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이 미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8월에 브레멘과 하노버 지방공동체 미사를 지방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봉헌했습니다. 오스나브뤼크는 성당 사용 문제로 9월부터 지방공동체 미사를 재개합니다. 미사 후 나눔은 없겠습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O.L.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9월(순교자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2	목			
3	금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4	토			브레멘 공동체
5	일	연중 제23주일		
6	월			
7	화	백로		
8	수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9	목			
10	금			
11	토			오스나브뤼크
12	일	연중 제24주일		
13	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14	화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5	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16	목			
17	금			
18	토		Nacht der Kirche	하노버 공동체
19	일	연중 제25주일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20	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10시 대축일 미사	만남성당
21	화	한가위	10시 한가위 당일 미사	만남성당
22	수			
23	목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추분		
24	금			
25	토		성 안스카 광역성당 설립 미사	11시 미사
26	일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7	월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28	화			
29	수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30	목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